

# 상생관계 핵심, 적절한 보상과 인간적 대우

— 충남 부여 성동목장(대표 이용우) —



안형준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충남 부여에 위치한 성동목장은 총 140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사육과 더불어 조사료도 직접 재배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체험목장도 운영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목장이 운영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외국인 근로자 덕분이다.

성동목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상생 관계를 구축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안정성도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어 주변 농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용우 성동목장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와 상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동기 부여’와 ‘인간적인

대우’가 가장 우선시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이거, 안 나와, 왜?”

“온도가 28°C가 돼야 물이 나오지, 지금은 덥지 않으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여!”

지난 9월 7일 충남 부여의 성동목장을 찾았을 때, 이용우 대표와 레이 솔리 씨는 목장 내부 정비에 여념이 없었다. 레이 솔리 씨가 멈춰버린 온도 조절용 분무기를 가리키며 걱정이 가득한 표정과 말투로 이용우 대표에게 왜 작동하지 않는지 물었다. 그러자 이용우 대표는 웃으면서 분무기가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그가 캄보디아 출신의 레이 솔리 씨를 고용한

건 지난 2012년. 고용센터에서 배정받고, 3년 4개월이란 시간을 함께 일했다. 현재 계약 기간인 3년이 지나 연장 신청을 통해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다.

이용우 대표에 따르면 3년 4개월 동안 레이 솔리 씨와 일하며 마찰이나 불화가 없었다고 한다.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이용우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으로 동기 부여와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꼽았다.

그는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한 달에 네 번 검사하는 체세포 등급 검사에서 각 검사 때마다 1등급이 나올 시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줬다. 또 젖소 발정을 발견할 때마다 건당 1,000원씩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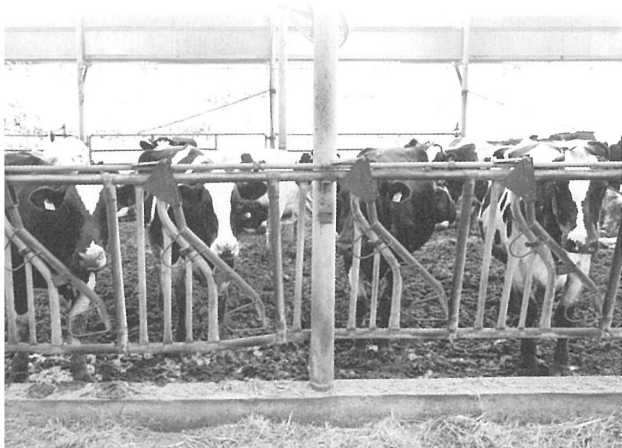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니 레이 솔리 씨가 젖소의 유방을 더 청결히 관리하고, 발정 징후를 발견



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더 젖소 상태를 살피게 됐다. 이런 노력들은 결국 목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됐다는 것이다.

이용우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목장주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계약서대로 일을 시키고 임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인센티브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어떠한 일에 대한 보상이 따르면 자신의 일처럼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 줄 것도 강조했다. 상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일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용우 대표는 레이 솔리 씨와 언제나 함께 일한다. 새벽 착유가 시작되는 오전 4시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해 오전에는 같이 쉬고, 오후 착유까지 함께 일하고 있다.



또 목장 특성 상 새벽 착유나 야간에 새끼를 낳는 등 일이 밤낮이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협의하에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동목장의 경우 새벽 착유가 끝나면 오전에 오침을 하게끔 해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계약서상에 별도로 정해진 휴가가 없지만, 배려 차원에서 한 달간 고국으로 휴가를 보내주기도 했다. 대가를 바라고 보낸 휴가는 아니었지만, 휴가를 다녀온 후에는 목장 일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일부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홀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의 나라가 가난하다고해서 그들까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며 고용관계보다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외근인 근로자를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되도록 고용센터를 통한 합법적인 고용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약 20년 동안 여러 방법을 통해 했지만, 가장 효율적

인 방법이 합법 고용이었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제일 불안한 날이 월급 다음날입니다. 밤사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돈’이다. 이용우 대표에 따르면 불법으로 채용된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있어 다른 농장에서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하면 함께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장의 일손 공백이 생기게 되고, 농장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법으로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고용된 외근인 근로자는 해당 목장을 떠난 시점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탈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용우 대표는 “목장의 경우, 젓소도 사람 손을 타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목장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되도록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㉞

